

# “깡동단결”...2020 비, 다시 시작된 ‘레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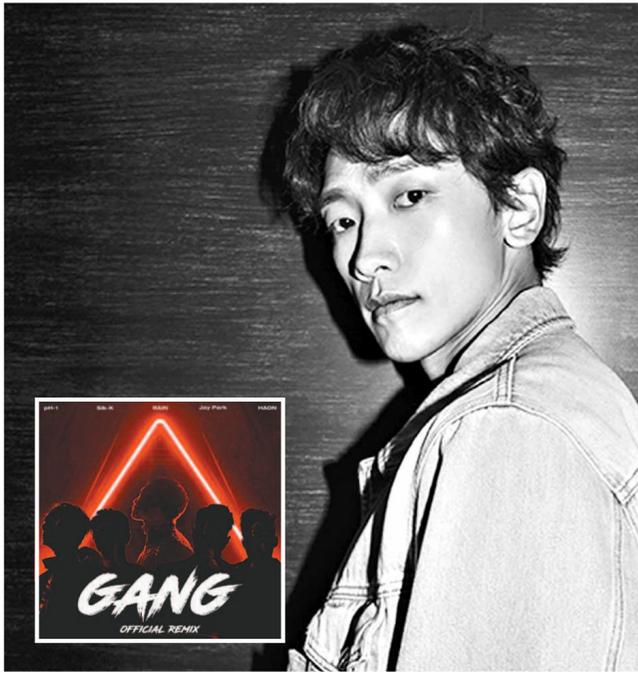
- 1 2017 '깡' 인기 업고 활동 재개
- 2 이효리·유재석과 '쌩쓰리' 결성
- 3 후배들 '깡' 리믹스 온라인 1위
- 4 유튜브 채널 오픈·광고도 쏘대

그야말로 '레이니즘'의 재현이다. 2008년 동명의 노래로 전성기를 구가한 가수 비가 최근 온라인에서 시작된 노래 '깡'의 뒤늦은 인기로 화제의 주인공으로 올라섰다. '1일1깡'이란 유행어를 낳은 '깡' 열풍으로 방송가를 휩쓴 비가 이제 음원차트까지 정조준한다.

시작은 박재범, 피에이치원(PH-1), 식케이, 김하은 등 래퍼들이 협업해 4일 내놓은 '깡' 리믹스 버전이다. 2017년 나온 원곡을 4명의 래퍼들이 저마다의 스타일로 개사해 새롭게 완성한 노래는 발매 직후 각종 음원사이트 1위를 휩쓸었다. 발표 3일째인 7일 오후 현재까지도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주인공 비는 리믹스 버전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직접 노래를 홍보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다.

### ● '깡' 리믹스 1위 '예상치 못해'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은 박재범 등 리믹스 작업을 이끈 래퍼들과 '원조'인 비조차 상상하지 못한 결과다. 비는 '깡' 리믹스 버전이 1위에 오르자마자 SNS에 "깡동단결"이라면서 "놀라고 한 일인데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범 또한 한 온라인 라디오프로그램에서 "그저 재



가수 비가 '깡'의 열풍에 힘입어 음원차트까지 휩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재범, 김하은 등 래퍼들이 재해석한 '깡' 리믹스 버전(작은 사진)이 그 시작이다. 사진제공 | 씨브라임아티스트메이킹사·하이어뮤직레코즈

미있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노래라 차트 진입은 생각지도 못했다"며 "비의 파급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비의 파급력은 음원차트와 유튜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음원사이트 멜론의 실시간 분석에 따르면 7일 현

재 '깡' 리믹스 버전 감상자는 20대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를 차지한다. 남녀 감상자 비율은 50대 50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젊은 세대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열풍에 힘입어 역

주행을 거듭한 '깡' 원곡 역시 현재 40위권에 안착해있다.

이에 더해 유튜브와 각종 SNS에서는 비가 2010년 발표한 또 다른 히트곡인 '힝송'도 새삼 인기가. '깡'이 유행에 다소 뒤쳐진 감성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먼저 주목받았다면 '힝송'은 요즘 아이들 그룹에 견줘도 뒤지지 않는 세련된 무대라는 반응과 함께 '숨겨진 명곡'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 ● '쌩쓰리' 벌써 가요계 '경계대상 1호'

비가 가수 이효리, 방송인 유재석과 결성한 혼성그룹 '쌩쓰리'는 벌써부터 가요계의 강력한 '음원 강자'로 예견되고 있다.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프로젝트로 시작한 그룹은 7월 중순 음원을 발표한다. 데뷔 무대도 준비하고 있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비의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예능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그는 최근 유튜브 웹예능 '워크맨'에 출연해 하루만에 327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7월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웹 콘텐츠에도 도전한다.

인기를 증명하듯 광고 모델 제의도 봇물이다. 최근 모델을 맡은 한 패션브랜드의 광고로 전역은 여성 취약계층을 위한 생리대 지원비로 기부했다. "깡" 열풍은 팬들이 만들어준 기회"라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One pick

위클리 핫이슈



## 김수현 복귀작 '사이코지만 괜찮아' 10일 제작발표회 유튜브로 생중계

김수현이 돌아왔다.

5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를 앞둔 김수현이 10일 tvN 토일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제작발표회를 통해 20일 첫 방송에 앞서 시청자를 만난다. 이날 오후 2시 tvN 유튜브 계정 등으로 생중계하는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하는 그는 드라마의 주연 배우인 서예지, 오정세 등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김수현은 극중 정신 병동 보호사 문강태를 연기한다. 자폐증 증상이 있는 형(오정세)을 비롯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고단한 삶에 지쳐 사랑마저 거부하는 캐릭터이다. 태생적인 결함으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동화작가 고문영 역의 서예지와 독특한 로맨스를 펼친다.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2019년 7월 군 복무를 마친 김수현의 복귀 무대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김수현은 작년 9월과 올해 1월 각각 tvN '호텔델루나'와 '사랑의 불시착'에 특별 출연했지만 전역 후 주인공으로 서 나서는 것은 2015년 KBS 2TV '프로듀사' 이후 5년 만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안도영·유진한 기자

## 블랙핑크, 걸그룹 새역사 쓰나

레이디가가와 협업한 '사위 캔디' 국내 걸그룹 첫 핫 차트 17위 포브스 '빌보드 핫 100 가능성'

"또 다시 역사적 순간이 될 것!"

걸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6월 중순 본격적인 국내 컴백을 앞둔 이들이 세계적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함께 부른 노래가 6일(한국시간) 영국 오피셜 차트 17위에 오르면서 국내 걸그룹으로 최고 기록을 세워 눈

길을 끌고 있다.

이날 오피셜 차트가 공개한 최신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가 컴백버전인 레이디 가가의 '사위 캔디'는 싱글 부문 '톱 100'에서 17위를 차지했다. 이 차트에서 블랙핑크가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다.

특히 오피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미국 빌보드 진입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는 4일 "사위 캔디"가 일주일 후(11일)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것은 블랙



케이팝 걸그룹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차트 17위까지 오른 블랙핑크가 미국 빌보드 차트 진입까지 노리고 있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핑크에 또 다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곡은 지난달 28일 처음 공개된 후 세

계 57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송 차트 1위를 차지했고, 중국 최대 음악사이트 QQ뮤직 신곡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미국에서 발표하는 팝으로는 이례적으로 가사에 한국어가 포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블랙핑크는 영어 가사 뿐만 아니라 "뜻밖의 표정 하나에 넌 당황하겠지"라는 한국어 가사를 소화해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았다.

이제 국내 컴백이다. 블랙핑크는 1년 2개월만의 국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하고 있다. 정규앨범은 9월 발표하지만, 이달 중순 선 공개 형태로 싱글 곡을 선보이고 매달 한 곡씩 신곡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비뇨기과 전문의 최준호 원장

◆ 세계적 의료기업 콜로플라스트 2년 연속 초청으로 런던, 미국 글로벌 학술대회 masterclass연수

## 주사시술 만으로 간단하게 복합확대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늘푸른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였으며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 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캡슐형 히알론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108-중-38478호



- ▶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 ▶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 ▶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 ▶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늘푸른비뇨기과의원 02)2272-5588 / www.egclinic.co.kr 종로3가역 14번출구앞 6층